뉴스홈 | 최신기사

# 이란 축구대표팀 다에이 감독 경질

송고시간 | 2009-03-30 08:55











배진남 기자



(서울=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 알리 다에이(40) 이란 축구대표팀 감독이 성적 부진으로 결국 부임 1년 만에 경질됐다.

AP, dpa, 로이터 통신 등은 29일 오후(이하 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 보도를 인용해 이란축구협회가 29일 긴급회의를 열어 다에이 감독의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알리 카파시안 이란축구협회장은 이란 파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지난 1년 동안 대표팀을 위해 노력해준 다에이 감독에 게 감사하다"고 말하고 나서 "협회는 후임 감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축구협회는 전날 열린 2010 남아공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5차전 홈 경기에서 이란이 사우디아라비아에 1-2 로 역전패를 당하자 바로 감독 거취 문제를 논의하려고 회의를 소집했다.

한국과 같은 조에서 남아공행을 다투고 있는 이란은 세 경기를 남겨 두고 조 4위(1승3무1패)로 내려앉아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

지난해 3월 대표팀 지휘봉을 잡은 다에이 감독은 사우디아라비 아와 경기가 끝나고 기자회견에서 "선수들이 보여준 경기력에 만족한다. 감독직에서 물러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란 협회는 홈 축구팬의 거센 사퇴 요구를 외면할 수 없 었다.













## 핫뉴스 →

여성 전용 교도소라는데...美서 동료 재소자 끼리 성관계 후 임신

박진, 광우병 사태 때 美당국자에 "한국에 너 무 많은 민주주의"

다섯식구 평균키 203cm...美 가족 '최장신' 기네스북 등재

'왕좌의 게임' 출연배우,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마지막 순간 마음 바꿨다" 2015년 파리 테러범...

韓 육사 생도 영 왕립사관학교 첫 졸업...여왕 "양국...

日 공주와 결혼한 대학 동기, 뉴욕 변호사 시험 또...

기원전 2~3세기 마야 달력 파편 발견..."가장 오래...



1993년 이란 국가대표로 발탁된 다에이는 2006 독일 월드컵을 끝으로 대표팀에서 은퇴할 때까지 A매치 149경기에 출전해 109골을 넣어 개인 통산 A매치 최다 득점 기록을 갖고 있는 이란 축구의 영웅이다.

독일 분데스리가 명문 클럽 바이에른 뮌헨과 헤르타 베를린 등에서 활약했고, 2006-2007 시즌까지 자국 프로팀 사이 파FC에서 뛰고 선수 생활을 마감했다.

다에이의 후임으로는 한국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동했던 이란 출신 미국인 압신 고트비(45)가 거론되고 있다. 카파시안 이란 협회장은 "고트비도 고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란 명문 클럽 페르세폴리스 지휘봉을 잡고 2007-2008 시즌 정규리그 우승으로 이끈 뒤 물러난 고트비는 다에이 선 임 당시에도 내정설까지 나돌 정도로 유력한 이란 대표팀 사령탑 후보였다.

이란 통신 ISNA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이란 대표팀을 맡고, 현재는 이란 클럽 사이파 카라지를 지휘하고 있는 모 하마드 마옐리 코한 감독을 차기 사령탑 후보 중 1명으로 꼽았다.

#### hosu1@yna.co.kr

♂ 관련기사

사우디축구 조하르 감독, 성적부진 경질

<월드컵축구> 불안한 1위..고비는 넘어

이라크, 비에이라 축구대표팀 감독 경질

이란 축구대표 확정..해외파는 3명

다에이 이란 감독 "박지성은 빅 플레이어"

####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09/03/30 08:55 송고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콘텐츠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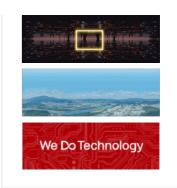
## 현장 영상 →

[영상] 입·발 묶인채 두 눈만 멀뚱멀뚱...누가 학대했니 [영상] 곡시포·수송헬기·장갑차...美, 꺼렸던 무기들

결국 우크라에

[영상] 미국 최고위급 키이우 방든 링컨 등 후보군"

###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 01:59

[영상] 윤석열, 안철수 '패싱' 질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

● 뉴스

尹당선인 "경제 복합위기 징후 뚜렷...물가상승 장기화 대비

尹당선인·安위원장 만찬 회동..."공동정 부 한치의 흔들림 없어"

'검증의 시간' 시작됐다...한동훈, 청문회 준비 돌입

"'의학에 뜻' 정호영 아들, 학부 4년간 관 련과목 2개 수강"

#### 댓글 많은 뉴스

김건희 여사 팬카페, '악성 댓글' 누리꾼들 경 ○ 157 찰에 고발

2 '유퀴즈' 尹당선인 출연 논란..."프로그램 취지와 

**3** 정호영 자녀, 경북의대 편입전 아버지 있던 경북 ☐ 61 대병원 자원봉사

4 두문불출 이재명, 이발·염색...조기등판론 속 활 

5 문대통령, 손석희와 대담...靑 "임기 5년 소회 밝 ⊕ 41 힐 예정"

뭐하고 놀까? ## 😛 →



















#### 뉴스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사베포

**테미벌뉴스** 핫뉴스 톰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강 영문연강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톱뉴스사설 이시각.헤드라인 **광고** KTX.열차 AREX.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뉴스
 모바일앱
 모바일앱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حربی Es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메스 한민족센터 K결정기회단(K-ODYSSEY) 채용 IR클럽 #홍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 등록번호 문화,나00009 | 등록일자 1980.12.29 | 발행일자 1980.12.29 | Tel. 02-398-3114

(C) [대표이사]성기홍 [편집인]조채희

Yonhapne